

격 려 사

김 준 영

(한국재정학회 회장)

2 격려사

올해 벌써 11년째를 맞게 되는 지방재정세미나를 중앙정부 관계관 여러분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여러분, 그리고 언론계와 학계여러분을 모시고 서해안 시대의 주역이 될 이곳 아산 도고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변화와 도전의 21세기를 맞고 있는 지구촌은 정보화와 디지털화, 그리고 지식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 국가와 지역이란 두 수레바퀴가 협력과 균형을 이루지 않고서는 국가발전의 재도약을 이루기가 어려운 국제적인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발전이 중앙 주도적인 과정이었다고 본다면, 21세기 국가발전의 動力은 분권화된 지역의 균형된 발전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메커니즘이 공급 중심적이고 보편적인 체계였다면, 21세기의 다원주의를 흡수할 수 있는 정책메커니즘은 수요 중심적이고 지역의 개성에 부응하는 특성화체계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국가발전시스템의 새로운 전환, 즉 중앙정부의 정책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 정착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6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공공선택권 확대와 지역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내 자원배분의 자율성 확보와 주민들의 다면적 수요의 반영 등 다양한 부문에서 행정서비스와 주민들 수요의 거리를 좁혔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와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動因으로 심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하여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경제의 지역간 격차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의 지역별 제조업생산지수는 88.2와 138.9 사이에서 편차가 발생하였으나, 2001년에는 82.7에서 243.3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역간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를 보면, 1993년 이후 최근까지 30% 이상 악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지역별 경제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균형발전이 당면한 중요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균형 발전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실시 6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방향」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가 다함께 고뇌하고 도출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재정세미나는 주최기관과 후원기관의 신중한 협의를 거쳐,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방향이라는 주제아래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방안”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재원조달 방안”을 주요 논제로 엄선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책논단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참여하는 사례발표를 세미나 프로그램에 추가하였고, 지방세미나의 후반부에 종합토론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으로上昇되고, 국가발전이 지역발전으로 還流될 수 있는 논점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번 지방재정세미나에서 도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참여와 함께 다양하고도 생생한 지자체현장의 목소리가 개진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효율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討論의 場이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지방재정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수고와 지원을 해주신 행정자치부 조영택 차관보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오형환 회장님,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양학회 임원님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 번 지방재정세미나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틀간의 세미나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발전에 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격려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8월 30일

한국재정학회 회장 김 준 영

